

音節數를 통해서 본 韓國語와 日本語의 語彙*

신 민 철**

(e-mail : mcshin68@hanmail.net)

目 次

0. 머리말
 1. 비교대상어휘
 2.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
 3. 음절수(音節數)를 이용한 분석
 - 3.1 어종(語種)과 음절수와의 관계
 - 3.2 의미분야와 음절수와의 관계
 4. 맺음말
-

0. 머리말

어휘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단어의 집합인데, 어휘연구는 크게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그 요소인 개개(箇箇)의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어휘의 요소인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의미·용법의 역사적 변천을 기술하는 「어지(語誌)」, 단어의 구성 원리 규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구성론(語構成論)」, 유의어의 의미관계 고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함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어원(語源)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08A132)

** 한남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을 보였고, 그 연구 성과가 어원사전 등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한편,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연구는 그 요소가 방대하다는 특성상 언어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어휘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기본어휘의 선정, 품사별 구성을 통한 문체적 특징의 파악, 어종(語種)¹⁾별 구성에 의한 외래 요소의 영향 정도의 파악 등 몇몇 성과는 있어 왔지만, 이것들을 통해 그 이상의 지적은 할 수 없는 것이다²⁾.

그런 가운데 어휘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얻 것이 田島毓堂 씨에 의해 제창된 비교어휘연구(比較語彙研究)이다. 종래는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에 있어서 그 수량적 측면에만 주목해 온 반면, 비교어휘연구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의미라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의미를 수량화함으로써 어휘를 더 상세히 기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 언어의 고어와 현대어 어휘의 비교나 언어 간의 어휘 비교를 통해 어휘에 반영된 문화차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비교어휘연구를 보게 되면, 그것이 지난(至難)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어휘라는 존재는 언어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언어 외적으로도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어휘의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목표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田島毓堂(2004)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어휘의 분석 및 비교를 위해서는 위상정보(位相情報), 문법적 정보, 어종(語種)과 어구성(語構成)에 관한 정보, 중요도(重要度)에 관한 정보, 어감(語感)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申玟澈(2006)에서는 『창가의 토토(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어휘를 대상으로 음절(音節)이라는 관점을 이용한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한어(漢語)로부터 받은 영향의 정도차(程度差)와 그 원인 그리고 구조적인 차이를 지적하여 그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창가의 토토(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와 같이 개별적으로 실현된 언어작품이나 언어자료의 어휘를 비교 어휘연구에서는 개별어휘(個別語彙)라 하여 집단적 규범으로서의 어휘(집단규범어휘(集團規範語彙))와 구분한다(田島毓堂1992)³⁾. 본고에서는 양 언어의 집단규범어휘로서 선정한 「초등학생기본어휘(初等學生基本語彙)」를 대상으로

1) 어종(語種)이란 단어의 유래(由來)를 말하는 것으로 고유어(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和語라 함), 한자어, 외래어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혼종어(混種語)로 분류된다.

2) 어휘의 일반적 특성은 「Zipf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사용빈도가 대단히 높은 극소수의 단어와 다수의 저빈도어(低頻度語),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최저빈도어(最低頻度語)로 어휘가 구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어휘의 품사별 구성과 문체와의 관계는 樺島忠夫(1954·1955)와 大野晋(1956)에 의해 밝혀졌다.

3) 개별어휘(個別語彙)와 집단규범어휘(集團規範語彙)는 각각 언어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파롤과 랑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일한 분석을 행하여, 申玟澈(2006)에서 지적한 차이가 한일 양 언어에 있어서 보편성을 띠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음절(音節)이라는 관점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1. 비교대상어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고의 대상어휘는 집단규범어휘로서 선정한 양 언어의 「초등학생기본어휘(初等學生基本語彙)」인데, 각각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 것이다.

<한국어>

- I. 「국민학교 學習用 基本語彙」(이응백, 『국어교육』 18-20, 1972)
- II. 「국민학교 入門期 學習用 基本語彙 調査 研究」(이응백, 『국어교육』 32, 1978)
- III. 「국민학교 아동의 語彙力 조사 研究-低·中·高학년별 표준 語彙目錄의 작성-」(이응백·이인섭·김승렬, 『국어교육』 42·43, 1982)
- IV. 『국민학교 교육용어휘(1, 2, 3학년용)』, 국어연구소, 1986
- V. 『국민학교 교육용어휘(4, 5, 6학년용)』, 국어연구소, 1987

<일본어>

- I. 「段階別學習基本語彙表-梁田小学校版」(福沢周亮·岡本まさ子1983, 『定着をめざした学習基本語彙の指導』)
- II. 『児童生徒に対する日本語教育のための基本語彙調査』(工藤真由美1996)

기본어휘의 선정방법에는 단어의 사용빈도나 분포 등에 의해 통계적(객관적)으로 선정하는 방법, 전문가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해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양자를 조합한 방법이 있는데(田中章夫1978, 窪田富男1989, 加藤彰彦1990), 초등학생기본어휘는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선정한 것이다. 단, 한국어의 국어연구소 자료 이외는 사용빈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분포에 중점을 두고 어휘를 선정했다. 田中章夫(1996)은 사용빈도나 사용률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가 몇 개의 자료에 걸쳐 나타나는가 하는 분포도 단어의 기본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 상기의 자료에는 한국어의 조사·어미, 일본어의 조사·조동사와 같은

부속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각각의 초등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의 어휘조사 결과 얻어진 부속어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한국어 4,159語, 일본어 4,133語를 양 언어의 초등학생기본어휘로 선정하였다.

초등학생기본어휘는 초등학생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어휘로, 언어발달 단계에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언어의 기본적인 어휘는 대부분 습득하게 되므로 각각의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기본어휘는 집단규범어휘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2.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

본고는 음절(音節)이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종(語種) 및 의미분야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교어휘연구의 하나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어휘연구의 주된 분석법인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意味分野別 構造分析法. The Structural Analysis of Vocabulary with Special Reference to Semantic Categories)」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은 어휘의 기본적 성격으로서의 수량성(數量性)과 의미성(意味性)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분석법으로 이것을 통해 종래보다는 상세하게 어휘를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석법을 위해서는 의미의 수량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1964)를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에서는 의미의 세계를 카테고리화한 다음 그 각 카테고리(이하 「의미분야(意味分野)」라 한다)에 각각의 단어를 소속시키고 있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고유의 번호(이하 「코드」라 한다)가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를 어휘를 구성하는 개개의 단어에 붙이고 그것을 집계하면 어떠한 의미분야의 단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휘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를 수량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비교어휘연구에서는 코드를 단어코드(WC: Word Code)와 어소코드(LC: Lexeme Code)로 구분하는데, 단어코드는 단순어·복합어에 관계없이 하나의 단어로서 붙이는 것이고(1단어 1코드), 어소코드는 단어의 구성요소마다 붙이는 것이다.

또한 비교어휘연구에서는 <言語のすべての要素(当面は文字として固定できるもの)が語彙論の観点から見れば語彙の要素である。(언어의 모든 요소(현재로서는

문자로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것)가 어휘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휘의 요소이다.)> 라는 입장에서 자립어뿐만 아니라 부속어도 어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에는 대부분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속어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설된 부속어 코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田島毓堂·広瀬英史(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코드의 집계 결과를 근거로 어휘끼리 비교를 하여 차이가 난 의미분야에 대해 그 원인을 고찰하는 것이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의 개략인데, 코드의 특성상 몇 가지 분석법이 있을 수 있다.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의 코드는 정수부순(1~4)과 소수부분(둘째 자리~넷째 자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수부분은 대분류로서 품사론적 분류(<1.> 体の類(체언류), <2.> 用の類(용언류), <3.> 相の類(형용사류), <4.> その他(접속사, 감탄사 등))를 나타내고, 소수 첫째 자리는 의미범위의 5부분(<1> 추상적 관계, <2> 인간활동의 주체, <3> 인간활동, <4> 인간활동의 생산물, <5> 자연)이고, 둘째 자리 이하는 그 세분(細分)이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1.1110>(관계), <2.111>(관계), <3.110>(관계)와 같이 품사론적 4분류 사이에 적어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는 서로 관련지어져 있다(『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의 「まえがき」 참조). 그러므로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우선 4종류의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을 생각할 수 있다.

広瀬英史(2000)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부문별(部門別)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룹별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淺見徹1971의 表에 의한 분류), 「중항목별(中項目別)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소수 둘째 자리까지), 「코드별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소수 넷째 자리까지), 「확대(擴大)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어소코드에 의한 분석)으로 나누어 각 분석법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広瀬 씨는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분석법은 「부문별(部門別)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 「그룹별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 「중항목별(中項目別)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인데, 그 중에서도 「중항목별(中項目別)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이 다른 분석법보다 상세하게 어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코드별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은 분류가 세세(細細)하기 때문에 전체적 경향을 보기에 부적합하지만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단어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뛰어나다고 말한다. 또한 비교어휘 연구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분석법은 「확대(擴大) 의미분야별 구조분석법」이라고 한다.

3. 음절수(音節數)를 이용한 분석

이 장에서는 양 언어의 초등학교기본어휘를 대상으로 음절수를 이용한 분석을 행하는데, 그에 앞서 몇 가지 전제를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부속어는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고유어이며 음절수도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도 분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고의 분석에서는 각각의 초등학교기본어휘에서 부속어를 제외한 한국어 3,993語, 일본어 4,035語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또한 각 분석에서 차이를 지적할 때는 백분율(百分率)에만 의존하게 되면 모집단(母集團)의 규모 차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그런 점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차이를 지적할 수 있는 통계기법인 카이자승검정법(χ^2 自乘檢定法)을 이용하기로 한다(이 검정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申玟澈(2001)을 참고하기 바람). 단, 정밀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심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는 5% 이하의 위험률까지를 유의(有意)한 차이로 인정하는데, 언어연구에서는 그것보다 약간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10% 이하의 위험률, 바꿔 말하면 90% 이상의 확률에서의 유의차(有意差)를 차이로서 인정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3.1 어종(語種)과 음절수와의 관계

어종(語種)과 음절수와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페이지의 [표1]과 같다.

카이자승검정 결과 고유어 8음절, 한자어 8·10음절, 외래어 2·7·8·9음절, 혼종어 5·7·9음절을 제외한 모든 음절에서 10% 이하의 위험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중 고유어 1·4음절, 한자어 2·4음절, 혼종어 4음절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고유어의 1음절에서는 한국어가, 4음절에서는 일본어가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본어의 음절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일본어에는 100개 남짓의 음절밖에 없는 데 반해 한국어의 경우는 자음이 19개(기본자음-14, 복합자음-5), 모음이 21개(기본모음-10, 복합모음-11) 있고, 이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데, 자음은 모두 종성(終聲)으로도 사용되므로 음절수에 있어서 한국어는 일본어를 크게 압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경우는 단음절어(單音節語)에 의한 의미의 분화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한자어 2·4음절을 보면, 2음절에서는 한국어가, 4음절에서는 일본어가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어의 2음절 한자어 중에는

‘가정(家庭), 건강(健康), 노력(努力), 동물(動物), 성적(成績), 은행(銀行)’ 등 많은 수가 일본어 쪽에도 들어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이들 한자어를 3음절이나 4음절로 읽는다는 것만 다르다. 따라서 이것도 양 언어의 음절구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어종(語種)과 음절수와의 관계

어 종	음 절 수	한 국 어		일 본 어	
		단어 수	비 율	단어 수	비 율
고 유 어	1음절	247	6.19	31	0.77
	2음절	854	21.39	539	13.36
	3음절	637	15.95	847	20.99
	4음절	341	8.54	645	15.99
	5음절	41	1.03	162	4.01
	6음절	3	0.08	37	0.92
	7음절	0	0	6	0.15
	8음절	0	0	1	0.02
소 계		2123	53.17	2268	56.21
한 자 어	1음절	147	3.68	23	0.57
	2음절	1055	26.42	205	5.08
	3음절	149	3.73	434	10.76
	4음절	16	0.40	703	17.42
	5음절	2	0.05	22	0.55
	6음절	0	0	19	0.47
	7음절	0	0	6	0.15
	8음절	0	0	3	0.07
	10음절	0	0	2	0.05
소 계		1369	34.28	1417	35.12
외 래 어	1음절	5	0.13	0	0
	2음절	18	0.45	16	0.40
	3음절	24	0.60	86	2.13
	4음절	8	0.20	63	1.56
	5음절	2	0.05	21	0.52
	6음절	0	0	15	0.37
	7음절	0	0	4	0.10
	8음절	0	0	3	0.07
	9음절	0	0	1	0.02
소 계		57	1.43	209	5.18
혼 종 어	2음절	60	1.50	3	0.07
	3음절	110	2.75	42	1.04
	4음절	262	6.56	59	1.46
	5음절	12	0.30	21	0.52

	6음절	0	0	13	0.32
	7음절	0	0	1	0.02
	9음절	0	0	2	0.05
소 계		444	11.12	141	3.49
합 계		3993	100	4035	100

한편 한국어의 4음절 혼종어는 ‘한자어+하다/되다’로 이루어진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는 ‘당부(當付)하다, 대답(對答)하다, 대비(對備)하다, 대신(代身)하다, 도망(逃亡)하다, 도망(逃亡)치다, 부탁(付託)하다, 시작(始作)되다, 시작(始作)하다, 요란(擾亂)하다, 의심(疑心)하다’ 등 기본어휘와 같이 기본도(基本度)가 높은 단어일 경우 일본어의 고유어와 대응하는 혼종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보다 이른 시기에 한자를 이용한 독특한 「가나문자」가 성립되어(10세기경) 고유어인 和語를 적어 둘 수 있는 표기수단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 일본 독자의 한문훈독법(漢文訓讀法)이 고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和語의 세력이 쇠퇴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이용하는 표기법인 이두(吏讀)와 구결(口訣)이 고안되는데, 고유어를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조선시대가 되어서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서 창제·반포되는데(A.D.1446년), 그 후도 한자어는 계속 증가한다. 그 배경에는 한문숭배사상이 있다. 한국어에 있어서 한자어가 본격적으로 발달·정착하는 것은 신라 후기(10세기초)부터인데,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과거제도와 유교주의적 정치를 표방(標榜)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장중심(詞章中心)·문예중심(文藝中心)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 한문학이 절정에 달하였고, 귀족사회에서는 한문으로만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부터 한문이 매우 중요시되는데, 그와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또한 유교적인 생활양식이 강요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일반 민중에게까지 보급되어 그 보편화가 촉진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어의 고유어 세력이 위축된 것이다(朴英燮1986 참조).

3.2 의미분야와 음절수와의 관계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의미분야를 나타내는 코드를 써서 분석을 행할 때, 코드의 소수점 이하 몇 째 자리까지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몇 가지 분석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용한 분석법이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다.

본고에서는 자세한 차이의 지적보다는 전체적 경향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자 하므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의미에 중점을 두기 위해 품사론적 분류를 나타내는 정수 부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미분야와 음절수와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페이지의 [표2]와 같다.

카이자승검정 결과 <1>(추상적 관계)의 7음절, <2>(인간활동의 주체)의 5·7·8·9음절, <3>(인간활동)의 8·9·10음절, <4>(인간활동의 생산물)의 8음절, <5>(자연)의 8음절을 제외하고 전부 10% 이하의 위험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특히 <1>(추상적 관계)의 1·2·4음절, <2>(인간활동의 주체)의 2음절, <3>(인간활동)의 2·3·4음절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저하다.

전체적으로 음절수가 적은 곳에서는 한국어가, 많은 곳에서는 일본어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인간활동)의 의미분야에 속하는 한국어 2음절어 중에는 ‘감동(感動), 희망(希望), 자유(自由), 기념(記念), 방법(方法), 독서(讀書), 일기(日記)’ 등 두 자(字)로 구성된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3음절과 4음절에 많이 들어있다. 또한 이 의미분야의 한국어 4음절어에는 ‘한자어+하다/되다’의 구성을 갖는 동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이 의미분야에 속하는 일본어 4음절에 들어있는 동사는 대부분이 고유어이며, 2자(字) 한자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 말한 양 언어의 음절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인간활동)의 3·4음절 일본어에는 한국어에 비해 ‘見抜く, 落ち着く, 吹き出す, 張り切る, 見掛ける, 飲み込む’ 등의 복합동사, ‘笑い, 勤め, 休み, 見込み, 暮らし, 決まり, 住まい, 考え, 手伝い’ 등 동사로부터의 전성명사(轉成名詞), ‘覚める-覚ます, 写る-写す, 泊まる-泊める, 決まる-決める, 伝わる-伝える, 授かる-授ける’ 등 단순어(單純語)에서의 자타(自他) 대응 동사가 많이 들어있다. 이것은 일본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2>(인간활동의 주체)의 2음절어를 보게 되면, 일본어에는 ‘彼, 誰, 僕, 君’ 등과 같은 인칭대명사가 들어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그, 누구, 나, 너’로 1음절어가 많다. 그리고 일본어에는 ‘妻, 親, 父, 母, 父母, 孫, 嫁, 兄, 姉, おじ, おば, 姪’ 12語의 가족과 친족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있는 반면, 한국어에는 ‘남편(男便), 아내, 부모, 아빠, 어미, 엄마, 아들, 자식, 누나, 동생(同生), 아우, 언니, 오빠, 이모(姨母), 형님, 형제, 사촌(四寸), 삼촌(三寸), 조카’ 19語가 들어있다. 그 중 ‘이모(姨母), 사촌(四寸), 삼촌(三寸)’과 같이 친족을 자

세히 구분하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표2] 의미분야와 음절수와의 관계

의미분야	음 절 수	한 국 어		일 본 어	
		단어 수	비 율	단어 수	비 율
<.1> (추상적 관계)	1음절	168	4.21	15	0.37
	2음절	705	17.66	276	6.84
	3음절	352	8.82	541	13.41
	4음절	250	6.26	518	12.84
	5음절	29	0.73	81	2.01
	6음절	1	0.03	18	0.45
	7음절	0	0	2	0.05
소 계		1505	37.69	1451	35.96
<.2> (인간활동의 주체)	1음절	34	0.85	5	0.12
	2음절	235	5.89	44	1.09
	3음절	136	3.41	75	1.86
	4음절	61	1.53	91	2.26
	5음절	6	0.15	8	0.20
	6음절	0	0	8	0.20
	7음절	0	0	1	0.02
	8음절	0	0	1	0.02
	9음절	0	0	1	0.02
소 계		472	11.82	234	5.80
<.3> (인간활동)	1음절	51	1.28	6	0.15
	2음절	497	12.45	149	3.69
	3음절	183	4.58	441	10.93
	4음절	243	6.09	583	14.45
	5음절	17	0.43	83	2.06
	6음절	2	0.05	37	0.92
	7음절	0	0	8	0.20
	8음절	0	0	4	0.10
	9음절	0	0	2	0.05
	10음절	0	0	2	0.05
소 계		993	24.87	1315	32.59
<.4> (인간활동의 생산물)	1음절	66	1.65	9	0.22
	2음절	228	5.71	106	2.63
	3음절	99	2.48	157	3.89
	4음절	16	0.40	137	3.40
	5음절	2	0.05	30	0.74
	6음절	0	0	10	0.25

	7음절	0	0	6	0.15
	8음절	0	0	1	0.02
소 계		411	10.29	456	11.30
<.5> (자연)	1음절	80	2.00	19	0.47
	2음절	322	8.06	188	4.66
	3음절	150	3.76	195	4.83
	4음절	57	1.43	141	3.49
	5음절	3	0.08	24	0.59
	6음절	0	0	11	0.27
	8음절	0	0	1	0.02
소 계		612	15.33	579	14.35
합 계		3993	100	4035	100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집단규범어휘로서 선정한 한일 양 언어의 「초등학생기본어휘(初等學生基本語彙)」를 대상으로 음절수(音節數)를 이용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비교를 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창가의 토토(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라는 개별어휘(個別語彙)를 대상으로 음절(音節)이라는 관점을 이용한 양 언어 어휘의 비교를 시도한 바 있다. 양쪽의 분석 결과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본고에서는 차이를 지적함에 있어서 카이자승검정법(χ 自乗檢定法)이라는 통계기법을 이용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의차가 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음절수가 적은 곳에서는 한국어가, 많은 곳에서는 일본어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 언어의 음절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 고유문자의 성립 시기가 늦었고, 한문의 수용 태도, 과거제도의 실시, 유교주의적 정치의 표방 등으로 인하여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한국어에 비해 복합동사, 동사로부터의 전성명사(轉成名詞), 단순어에서의 자타(自他) 대응 동사 등이 많다는 것을 일본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한국어에서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친족명칭을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위에 정리한 것은 모두 개별어휘의 분석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양 언어에 있어서 보편성을 띠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미 잘 알려진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단어의 집합으로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음절이라는 관점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자세한 분석보다는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한일 양 언어의 어휘를 더욱더 자세히 분석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음절 이외의 여러 관점을 분석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朴英燮 (1986) 『國語 漢字語의 起源的 系譜 研究-現用 漢字語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浅見徹 (1971) 「古代の語彙Ⅱ」(『講座国語史3 語彙史』大修館書店)
- 大野晋 (1956) 「基本語彙に関する二三の研究-日本の古典文学作品に於ける-」(『国語学』24)
- 加藤彰彦 (1990) 「教育基本語」(『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7 日本語の語彙・意味(下)』明治書院)
- 樺島忠夫 (1954) 「現代文における品詞の比率とその増減の要因について」(『国語学』18)
- 樺島忠夫 (1955) 「類別した品詞の比率に見られる規則性」(『国語国文』250)
- 窪田富男 (1989) 「基本語・基礎語」(『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6 日本語の語彙・意味(上)』明治書院)
- 申玟澈 (2001) 「日韓語彙の比較研究-「小学生基本語彙」を対象として-」(『開発・文化叢書37 比較語彙研究の試み7』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開発研究科)
- 申玟澈 (2006) 「音節数を用いた日韓語彙比較の試み」(『国際シンポジウム比較語彙研究X』語彙研究会)
- 田島毓堂 (1992) 「語彙論の課題-集团的規範と個別的実現-」(『名古屋大学国語国文学』71)
- 田島毓堂 (2004) 「語学教育のための語彙詳細コードの提案」(『語彙研究会叢書1 比較語彙研究の試み11』語彙研究会)
- 田島毓堂・広瀬英史 (1997) 「語素コードに関する提案-比較語彙論のために(その2)-」(『「語彙研究法」報告2 語彙研究の可能性』名古屋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 田中章夫 (1978) 『国語語彙論』(明治書院)
- 田中章夫 (1996) 「基本語彙の選定」(『国文学』41-11)
- 広瀬英史 (2000) 「比較語彙論的方法による語彙研究の可能性とその方法」(『開発・文化叢書31 比較語彙研究の試み4』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開発研究科)

要 旨

文字通り「語の集合」としての語彙を対象とする従来の語彙研究では、語彙の一般的特性を用いた基本語彙の選定、品詞別構成からの文体的特徴の把握、語種別構成による外来要素の影響の度合いの把握などいくつかの成果を挙げてはいるが、これらを通してそれ以上の指摘は出来ない。

そのような中、語彙研究に新たな突破口を開けたのが田島毓堂氏によって提唱された「比較語彙研究」である。従来は語の集合としての語彙における数量的側面にのみ注目してきたのに対し、比較語彙研究では、もう一つの重要な側面である意味の観点の積極的に入れ、意味を数量化することにより語彙をさらに詳細に記述できるようになり、その究極的な目的は同一言語の古語と現代語語彙の比較、または、言語間の語彙の比較を通じて、語彙に反映された文化の差を指摘することである。しかし、今まで行われた一連の比較語彙研究を見ると、それが至難の業であることが分かる。その原因は、語彙という存在は言語内に止まらず、言語外的にも様々な要素が複雑に関係しているからである。従って、田島毓堂(2004)が言うように、さらに詳細な語彙の分析および比較、また、それによる比較語彙研究の目的の実現のためには、位相情報、語種や語構成に関する情報、重要度に関する情報、語感に関する情報など色々な情報を用いる必要がある。

このことに注目し、本稿では、集団規範語彙として選定した日韓両言語の「小学生基本語彙」を対象として音節という観点を用いた比較を行なった。これに先立って『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という個別語彙を対象として音節による比較を試みたことがある。両方の分析の結果に大きな違いは見られなかったが、本稿では、差を指摘するに際し「X自乗検定法」という統計技法を用いるなどより客観的な分析が行なわれたと思う。

分析の結果、日本語と韓国語の音節構造の違い、日本語の構造的特徴、韓国語における漢字語や儒教文化の影響などを指摘した。その中には既によく知られていることが含まれていると思うかもしれないが、語の集合としての語彙を対象とした研究を通じて明らかにしたことに意義があり、これにより音節という観定の有効性を再確認することが出来た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比較語彙研究 集団規範語彙 個別語彙 意味分野別構造分析法
音節数 語種 意味分野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